

vol.23 | 2018년 9월호

Index

- 1 [자유학기제 현장 돋보기]
경남 한산중 '작은 섬에 살지만 Into the World'
- 2 [자유학기제 현장 돋보기]
지도교사가 말하는 '작은 섬에 살지만 Into the World'
- 3 [교과융합 수업지도안 들여다보기]
영화 제작하는 교과융합 수업
- 4~5 [거꾸로 교실 도전하기]
충북 의림여중 '몸소 배우는 정보통신 윤리'
- 6 [교사-학생이 함께하는 수업 혁신]
경기 월곶중의 소프트웨어교육 수업
- 7 [영상으로 배우는 영어]
대구 매호중의 영상 활용 영어 수업
- 8 [이달의 시사 논술]
'국민연금' 개편 두고 반대 여론 ↑, 해결책은?
- 9 [교육 초대석]
'민주시민교육' 확산 위해 힘쓰는
영경미 경기 시곡중 교사
- 10 [추천! 진로체험 프로그램]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학자와 만나요'
부산 동명대학교 '해양로봇아카데미'
- 11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
상담은 부담스럽다? 신나는 Wee클래스도 있다!

경남 한산중 '작은 섬에 살지만 Into the World'

작은 섬에 산다고 꿈까지 작은가요?



직접 만든 이정표를 교내 화단에 심고 있는 한산중 학생들. 김미화 교사 제공

경남 한산중의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인 '작은 섬에 살지만 Into the World'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경남 통영시에 딸린 작은 섬 한산도에서 세계 각국의 특성과 문화를 공부하며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한다.

김미화 경남 거제장평중 영어 교사(올해 2월까지 한산중에서 근무)는 섬에 사는 학생들이 지역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더 넓은 세계로 꿈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이 수업을 기획했다.

'작은 섬에 살지만 Into the World' 수업은 매주 화요일 5교시에 총 17차시로 진행됐다. 이 수업은 학생들의 삶의 터전인 한산도를 세계에 알리는 '작은 섬에 살지만' 파트(4차시)와 세계 여러 나라를 공부하는 'Into the World' 파트(13차시)로 나뉘어 진행됐다.

작은 섬에 살지만...

중학교 영어수업의 목표 중 하나는 학생들이 '외국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교사는 우리 문화를 먼저 배우고 외국 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국제사회에서 더욱 당당히 설 수 있기 때문. 학생들은 삶의 터전인 한산도의 특성과 장점을 조사하고, 이를 영어로 알리는 활동부터 시작했다.

1차시는 존경하는 사람을 한산도로 초대하는 초대장을 쓰는 시간. 수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학생들은 한산도가 특별하고 아름다운 섬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CEO가 꿈인 한 학생은 빌게이츠를 초대하고 싶어하면서도 "자랑거리가 없는 한산도에 어떻게 부르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 교사는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해 "사랑스런 여러분도, 섬의 전경이 한 눈에 보이는 학교 뒷산도, 맛있는 미역도 모두 한산도의 자랑이다. 충분히 초대할만하다"고 강조했다.

2차시에는 미국식 주소를 표기법에 따라 학교 주소를 써보고, 3차시에는 한산도의 유명한 음식 조리법을 영어로 작성했다. 국제사회에 한산도를 알리기 위한 기초작업을 한 셈이다.

이렇게 1~3차시 수업을 마치고 나면 4차시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한산도 명예 홍보대사가 되어본다. 가장 자랑하고 싶은 한산도의 '명물' 하나를 뽑아 홍보하는 대본을 영어로 쓰고, 이를 리포터처럼 자연스럽게 읽으며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 김 교사는 "CNN 뉴스를 보며 자연스럽게 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쉬는 시간에도 틈틈이 말하

기 연습을 했다"면서 "발표 경험은 학생들의 표현능력을 길러 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더 넓은 세계로!

1~4차시에 우리 고장을 공부했다면 5~17차시에는 세계 각국을 공부하며 시야를 넓히는 시간. 출발은 영어 노트 표지만 듣기다. 학생들은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활용해 각각 '꿈'을 주제로 한 이미지를 만들었다. 김 교사는 이미지 파일들을 취합해 노트를 제작 주문했다. 한산도에는 문방구가 없어 노트를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학생들의 학용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색다른 활동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 셈. 김 교사는 아직 꿈이 없어 이미지 만들기를 주저하는 학생에게도 '그만큼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용기를 줬다.

6차시부터는 외국 문화에 대한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먼저 6차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200개 나라 이름을 검색해보고, 찾은 나라 이름으로 끝맞춤기를 하는 시간. 제일 처음 France(프랑스)를 적었다면 다음으로 Ethiopia(에티오피아)를, 이어 Argentina(아르헨티나)를 적는 식이다. 학생들은 세상에 아주 많은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7~8차시에는 학생들이 가보고 싶은 도시가 한산도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이정표를 만든다. 화살표 모양 종이에 'Beijing(베이징), North(북쪽), 1100km'라고 쓴 뒤, 이를 긴 각목에 붙이는 것. 직접 만든 이정표는 교내 화단에 심어 언제든 지볼 수 있도록 했다.

9~10차시에는 수업과자를 나눠먹으며 과자 원산지의 문화를 알아보고, 11차시에는 가보고 싶은 나라를 좀 더 자유롭게 조사한다. 혹시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사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학생이 있다면 평소 학생의 관심사에 맞춰 조사방향을 조언해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너의 꿈은 요리사니까 프랑스의 특별한 음식들을 찾아보자"라고 알려주는 식이다.

14~17차시는 외국의 축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시간. 할러윈 시즌에는 마녀 빗자루 모양의 쿠키를 만들어 보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I Wish' 표현을 이용해 소망카드를 써서 작은 트리에 매달았다. 김 교사는 "도시에서 사는 학생들과 달리 외국축제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섬마을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수업"이라고 말했다.

배움을 나누며 한뼘 더 성장

12~13차시에는 한산중만의 특성을 살린 활동이 이뤄졌다. 한산중은 유치원-초등학교와 통합으로 운영돼서 모든 학생들이 통학버스, 급식소, 운동장 등을 공유한다. 김 교사는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한산중 학생들이 영어 동화책을 직접 번역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기증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필이면 동화책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 섬마을 학생들은 부모님이 뱃일을 나가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조부모 손에서 크는 경우가 많아 어린 시절 '동화책'을 읽어본 경험이 적어서다.

학생들은 영어 동화책 '작은 빨강 닭'을 번역하고, 유치원을 찾아가 직접 낭독도 해줬다. 왼쪽 페이지엔 영어 원문, 오른쪽 페이지엔 번역문을 배치해 제본하는 역할은 교사가 맡았고, 만든 책을 동생들에게 나눠주는 건 학생들이 직접 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보며 큰 꿈을 품게 되는 것이 이 수업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자유학기제 현장 돋보기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오후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학생의 수요를 반영해 개설되는 만큼 형태도 다양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까'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숨겨진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 운영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산중 학생들이 만든 마녀 빗자루 모양의 쿠키. 김미화 교사 제공

교사가 말하는 자유학기제

앞서 소개된 자유학기제 활동을 직접 기획·지도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자유학기 활동 운영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다.

김미화 교사가 말하는 주제선택 활동

“베이징까지 별로 안 멀군, 같이 걸어가볼래?”



한산중 학생들의 소망을 담은 카드와 트리. 김미화 교사 제공

‘작은 섬에 살지만 Into the World’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산도 방문을 촉구하는 초대장 쓰기 △수입과자 원산지의 문화 조사하기 △헬러윈과 크리스마스 체험하기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한 김미화 경남 거제장평중 영어 교사(올해 2월까지 한산중에서 근무)는 “학생들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꿈을 키우고, 그때 영어가 반드시 필요한 도구임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작은 섬에 살지만 Into the World’ 수업을 이끈 김 교사로부터 수업 기획 과정과 운영 노하우에 대해 들었다.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수업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한산중은 전교생이 11명인 ‘초미니’ 중학교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또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런 장점을 이용해 한산중 학생들에게 ‘딱’ 맞는 수업을 기획하고 싶었다.

수업을 기획하기에 앞서 한산중 학생들의 특성은 무엇인지 열심히 고민했다. 한산중 학생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아주 밝다. 하지만 학교에서 진행되는 체험학습을 제외하고는 섬 밖으로 나가본 적이 별로 없고, 또 주변 어른들의 직업이 제한적이라 장래희망도 다양하지 않은 편이다. 그런 학생들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고, 자신들의 가능성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그 바람 ‘작은 섬에 살지만 Into the World’ 수업에 담은 것이다.



한산중 학생들이 직접 번역한 동화책. 김미화 교사 제공

대신 부족한 학습량을 집에서 좀 더 채울 수 있도록 지도했다. 교과서에 부록으로 붙어있는 CD를 통해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라고 알려주거나, 수업에서 새로 배운 단어는 노트에 세 번씩 써보라고 독려하는 식이다.

수업의 효과는?

영어를 어려운 과목, 그래서 두려운 과목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하면 영어는 쓰임새가 많은 좋은 도구다.

한산중 학생들에게는 “한산도엔 육지로 통하는 다리가 없다. 그런데 그런 다리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아주 편리할 것이다. 영어는 그렇게 세계로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유용한 도구다”라고 이야기해주니 쉽게 이해했다.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 동기부여를 해줌으로써 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

이 수업의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한다.

또 이정표 만들기 활동 중 한 학생이 친구에게 “베이징까지 별로 안 멀군. 같이 걸어 가볼래?”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학생들의 포부가 커졌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교사로서 무척 뿌듯한 순간이었다.

▶김미화 경남 거제장평중 영어 교사(올해 2월까지 한산중에서 근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수업 방식에 대한 고민이 컸다. ‘영어를 좀 더 많이 가르쳐야 하는 건 아닐까?’ ‘단어나 문법을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하지만 교사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나침반이라고 믿는다. “우측 두 번째 차선으로 주행하세요”처럼 세세한 안내를 해주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각 학교·학생의 특성 반영해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려면?

교사가 따뜻한 시선으로 학생들을 바라보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구상하면 학생들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단, 수업에서 너무 많은 내용을 가르치겠다는 욕심은 조금 덜어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영어를 더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의 번역기 사용을 최소화하려면?

작문수업을 하다보면 온라인 번역기를 사용하려는 학생들이 제법 많다. 사전을 보면 하나의 한국어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가 1개 이상이기 때문이다. 아직 영어 실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는 여러 개의 단어 중 어떤 단어가 이 문장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인지 파악하고 선택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물론 번역기도 때에 따라 효과적인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번역기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가장 적절한 단어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줘야 한다.

단,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필요하다. 학생들은 앞으로도 꼭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고 강제하기 보다는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분의 손 안에 세상이 있다”고 말해주고, 어떤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할지 조언해주고,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게 하면 도구 활용 능력과 정보 탐색 역량도 자연스럽게 신장된다.

제언

이 수업을 다른 교사들에게 소개하면 “정말 재밌어 보인다. 그런데 학생 수가 적어서 가능한 수업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맞다. 학생 수가 적어서 훨씬 원활하게 진행된 활동도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활동이 대표적이다.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지가 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단짠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도 훨씬 용이하다. 반면 학급 당 학생 수가 30명 가까이 되는 더 큰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일일이 관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수업을 다른 중학교에서 시행하고자 한다면, 해당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딱 맞는, 훨씬 더 좋은 수업이 탄생하리라고 생각한다.

교과 융합 수업지도안 들여다보기 '융합형 인재'가 각광받는 요즘,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교과융합 수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집니다. 이 코너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교과융합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업지도안과 함께 수업활용을 위한 교사의 조언도 실었습니다.

경기 부곡중앙중의 국어·도덕·영어·미술·사회·기술가정 융합수업

영화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융합교육

경기 부곡중앙중 교사들은 중1 학생들이 각 교과와 핵심 성취수준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영화'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국어(이유진 교사) △도덕(김현진 교사) △영어(박성실 교사) △미술(박소영 교사) △사회(이경은 교사) △기술가정(이미연 교사) 과목의 융합프로젝트 수업으로 설계됐다.

학생들은 시나리오를 쓰고(국어), 이를 영어 콘티로 재구성한 뒤(영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했다(기술가정). 이어 영화의 주제를 반영해 포스터를 제작하고(미술) 영화관에서 시사회를 진행했다. 모둠원과 힘을 합쳐 영화를 제작하며, 콘텐츠 기획능력과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도덕, 사회) 등을 기를 수 있었다. 부곡중앙중의 해당 프로그램은 교육부가 올해 주최한 '제3회 자유학기제 실천사례연구대회'에서 1등급상을 수상했다.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한 이경은 사회교사는 "창의성이 중시되는 오늘날, 자신만의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크리에이터들이 경쟁력을 갖는다"며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콘텐츠 기획능력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능력, 협동심등도 기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대상 중2	과목(차시)	단원	시기
	국어(5) 영어(5) 사회(5) 도덕(17) 미술(10) 기술가정(3)	I. 공감, 마음을 있는 징검다리 VII. The Best Artist VIII. 개인과 사회생활 IV-2. 삶의 소중함과 도덕 I. 시각문화와 나 VI. 정보미디어의 활용	8월~12월 총 45차시
학습 주제	[내 인생의 영화 만들기] 영화의 구성단계부터 촬영, 편집, 시사회 진행까지 친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이 주체적으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 영상 언어의 특성을 살려 영상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도덕) 도덕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규범 체계임을 이해한다. 삶 속에서 도덕이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도덕적인 삶의 다양한 모습을 열거한다. ▶(영어)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그림이나 사진의 내용을 설명하는 간단한 문장이나 글을 쓸 수 있다. ▶(사회) 사례를 통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의미를 이해하고, 역할 갈등을 탐구할 수 있다. 사례분석을 통해 사회집단의 의미와 특징을 탐구할 수 있으며, 사회집단 간 또는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별과 갈등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탐구할 수 있다. ▶(기술가정) 정보 미디어 활용 체험활동 및 정보 통신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미술)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국어(5)	'나의 관심사를 반영한 시나리오 작성'	8월말 ~ 9월
영어(5)	영어 스토리보드(콘티) 작성	9월말 ~ 10월
1~5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시: 시나리오 기초 학습 및 모둠 구성 ▶2~5차시: 시나리오 주제 선정 및 시나리오 작성하기 	
6~10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6~8차시: 완성한 시나리오에 맞춰 촬영구도를 고려해 콘티 제작하기 ▶9~10차시: 완성된 콘티를 모둠원 6컷씩 나눠 가진 후 컷에 간략한 스토리를 한글로 적고, 영어로 번역해 스토리보드 완성하기 	

교사의 도움말 1~5차시,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는 소재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생이 교우관계 및 학업을 소재로 선정했지만, 일부는 조선시대의 역사적 사건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 소재를 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교사는 촬영 시간 및 공간, 예산, 촬영 기술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콘텐츠를 기획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콘티는 영화 촬영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공간(배경) △배우의 동선 △대사 분량 △카메라의 앵글 등을 고려해 그려야 한다. 영상을 촬영하다보면 장면 구성에 관해 모둠원간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 콘티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콘티에 한글로 기재된 장면 설명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 작문실력도 기를 수 있다.

사회	영화 제작과정과 연계한 사회교과 수업	9월 ~ 11월
도덕	프로젝트 활동 기록지 작성	9월 ~ 12월
11~15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차시: 사회 속에서 나의 지위와 역할을 파악하고 모둠별 영화주제 성찰하기 ▶12차시: 개인과 사회적 역할의 갈등 유형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 고안하기 ▶13차시: '나'를 둘러싼 사회집단의 종류 및 역할 파악하기 ▶14차시: 모둠원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차이'와 '차별' 구분하기 ▶15차시: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인지적·정의적 영역의 목표를 설정한 후 자기평가 및 동료 평가 실시하기 	
16~3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32차시: 내 인생의 영화 프로젝트 활동 기록지 작성 * 해당 활동은 '내 인생의 영화 프로젝트' 시작부터 시사회를 마칠 때까지 실시하며, 도덕 수업 매 차시마다 약 5분 동안 진행한다. 	

교사의 도움말 '내 인생의 영화'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업이다. 시나리오 작성부터 영상 촬영·편집까지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기는 힘들다. 모둠 내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11~15차시에는 중1 사회교과서 '개인 과 사회생활' 단원을 재구성한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개인의 지위와 모둠 내의 역할이 상충할 때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민하며, 삶의 가치관을 되돌아보고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차이와 차별의 개념을 학습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자기·동료 평가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가능해보기도 했다.

16~32차시는 프로젝트 활동 기록지를 작성하는 시간. '자기관리 역량'은 도덕교과에서 강조되는 역량 중 하나로, 학생들은 개별 일지를 작성하며 자신이 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자신의 태도를 성찰했다.

미술	'내 인생의 영화' 포스터 그리기	10월 ~ 12월
기술가정	영상 편집	11월
전 교과	영화 시사회 및 시상식	2·3학년 기말고사 기간
33~4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33차시: 시나리오 주제에 맞춰 포스터 콘셉트 구상하기 ▶34~38차시: 포스터 밑그림 그리기 ▶39~42차시: 시나리오의 분위기를 고려해 포스터 채색하기 	
43~45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43차시: '무비메이커' 프로그램 기능 익히기 ▶44차시: 촬영 및 편집기술 익히기 ▶45차시: 배경음악 자막 넣기 * 창체시간을 활용한 청소년 영화감독 특강 실시 	
시사회 및 시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인근 영화관으로 부모님을 초청해 영화 작품 함께 감상하기 ▶ 영화 제작 과정 중에 촬영한 스틸컷을 활용한 '스틸컷 신문' 만들기 ▶ 시청각실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모둠별 단체사진 촬영하기 	

교사의 도움말 33~42차시 포스터 그리기는 시나리오 작성을 마친 후 진행 한다. 영화의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색감, 글씨체, 그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미적 감수성과 시각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43차시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법을 가르친다. 이와 함께 저작권 개념을 설명하며, 영상에 배경음악을 넣을 때 유튜브에 무료로 배부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노래를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영화감독을 초빙해 영상 촬영 및 편집 방법을 지도받는 것도 좋다.

영화 제작을 마친 후 지역의 영화관을 대관해 상영회와 시상식을 진행했다. 일부 학생은 상을 받지 못하면 활동 전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느끼기도 한다. 시상식 및 매 활동시간마다 '과정'의 중요성을 인지시켜야 한다.

교사의 코멘트

'내 인생의 영화' 프로젝트는 각 교과와 교육과정과 진로체험을 연계해 '학습'과 '진로탐색'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각 교과와 핵심개념을 영화제작이라는 활동을 통해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다. 영상 촬영은 각 교과 시간을 활용해 융통성 있게 진행했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각 교과 교사가 학생들을 관리·감독했다.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사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토론, 교사협의회,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활성화 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경은 경기 부곡중앙중 사회교사



거꾸로 교실 도전하기

자유학기제를 발판삼아 학교 수업은 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체가 돼 수업을 이끌어가는 '거꾸로 교실'은 학생 중심 수업의 대표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지요. 이 코너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거꾸로 교실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참신하고 유익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장우성 충북 의림여중 기술·가정 교사의 거꾸로 교실

악플은 나쁘고 선플은 좋다? 직접 느껴봐야 안다!

요즘 청소년은 손에서도 통 스마트폰을 떼 놓지 않는다. 관심 있는 연예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학교 친구들을 포함해 익명의 누군가와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쉽게 소통한다. 문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이버 공간과 '초연결' 되어 있는 학생들이 익명성에 기반한 사이버 언어폭력과 사이버 모욕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장우성 충북 의림여중 기술·가정 교사는 교과 과정의 일부로 정보통신 윤리를 가르칠 때마다 더욱 고민이 컸다. 장 교사는 "악플이 난무하는 뉴스 기사 댓글에도 이미 무신경하리만치 많이 노출돼 있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악성댓글을 달지 말자'고 가르치기만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교과서적으로만 배우고 넘어가는 정보통신 윤리에 대해 학생들이 보다 깊이 생각해보고, 스스로 느껴보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고민 끝에 장 교사는 학생들이 직접 악플과 선플을 남겨본 후 그 느낌을 공유해보는 2차시 분량의 수업을 기획했다. 악플을 남긴 후 자신의 모습을 거울 스티커를 통해 되돌아보게 하는 이 수업은 학급 친구들과 선플을 주고받는 활동과 함께 진행돼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수업 개요

교과	기술·가정	학기	3학년 1학기	차시	2차시
단원	정보통신기술의 세계				
주요 핵심성취기준	[9정01-03]정보사회에서 개인이 지켜야 하는 사이버 윤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사이버 폭력 방지와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예방법을 실천한다.				
수업 내용	1. 악플 체험 및 소감 발표하기 2. 선플 체험 및 소감 발표하기 3. 선플라워 활동지 색칠하기(컬러링 활동)				

▼디딤영상

차시	1~2차시(블록타임)	
수업	-악플 써보기 -악플러 체험 소감 발표하기 -나에게 돌아온 악플을 본 소감 발표하기	-친구에게 선플 남기기 -선플을 본 소감 발표하기 -선플라워 컬러링



※ 디딤영상이란? 거꾸로교실에서 진행될 수업의 핵심 내용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사전 혹은 사후에 제공하는 학습 보조 영상.

거꾸로 교실 도전하기

거꾸로 교실을 직접 기획·지도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거꾸로 교실 운영 노하우를 살펴본다.

수업연구 고민된다면? 동료교사와 고민 나누세요!



장우성
충북 의림여중 기술·가정 교사

Q. 이 수업을 어떻게 기획하게 됐나?

실제 학생들 사이에서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 그만큼 정보통신 윤리를 다룬 이 단원의 내용이 요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정보통신 윤리를 다룬 이 단원 자체가 당위적인 성격이 강한 내용이다 보니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나름대로 별도의 텍스트를 준비해 읽히거나 영상을 찾아 보여주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단순히 가르치거나 보여주지만 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유연히 학생들에게 악플을 쓰게 한 후 거울을 통해 악플을 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이 플롯을 떠올리게 됐다. 이후 국어과, 미술과, 도덕과 등 동료 교사들로부터 조언을 얻어 활동 후 소감을 발표하게 하는 과정을 추가했고, 컬러링(색칠하기) 요소까지 더해 수업을 완성했다.

Q. 수업의 효과는?

막연하게 '악플은 안 좋은 거야', '선플이 좋은 거야' 생각만 하는 것과 실제로

본인이 손으로 악플과 선플을 써보고 그 느낌을 느껴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교과서로만 읽고 보는 것보다 악플러, 선플러가 되어 보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그 상황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게 함으로써 수업 내용에 훨씬 몰입하게 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학생들은 "활동을 통해 직접 느껴보니 악플이 왜 나쁘지, 얼마나 나쁘지 훨씬 더 와 닿았다"란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로 선플을 주고받는 활동은 학급의 추억거리로 남기도 했다. 형식적으로 넘어가기 쉬운 이 단원을 학급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 위주 수업으로 재구성해 학생들의 기억에 남는 수업으로 만든 것도 성과라면 성과 아닐까.

Q. '학생들에게 악플을 쓰게 한다?' 과연 괜찮을까?

물론 처음에 이 활동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남이 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썼던 악플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구조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다. 유용성이든 위해성이든 본인이 직접 경험해봐야 더 또렷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각자 쓴 내용에 대해 발표하거나 그 내용을 교사가 검사하는 과정은 생략했다. 이 활동은 본인 스스로 잘못된 점에 대해 느끼고 깨닫는 것에 의의를 둔 것이기



서로의 등에 붙인 '선플라워'에 선플을 남기는 학생들의 모습. 의림여중 제공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 악플 체험과 선플 체험으로 구성된 이 수업은 2차시로 나눠 진행할 수 있으나, 상반된 두 활동의 느낌을 대조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도록 2차시를 블록타임으로 묶어 연달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차시가 아닌 활동 기준으로 수업을 소개한다. 각 활동에 배분된 시간은 학급 참여도 및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 할 수 있다.

[도입] 사전 학습(5-10분)

수업 전, 교과서에서 다룬 정보통신 윤리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간단한 디딤영상을 준비한다. 지식 습득이 중요한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 수업은 활동 위주로 구성되고, 교과서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은 디딤영상으로 대체한다.

우선 '괄호 채우기' 문제가 적힌 활동지를 통해 디딤영상의 내용을 잘 숙지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수준은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쉽게 구성한다.

[전개] 악플러 되어보기(약 40분)

내용 학습이 끝나면 '악플러 되어보기' 활동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에게 나눠준 활동지의 첫 문항은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악플을 달아보자'다. 학생들은 평소 본인이 싫어했던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 그대로 '마음껏' 악플을 써 본다. 주로 큰 범죄를 저지른 악한 인물이나 평소 좋아하지 않았던 연예인이 대상이 된다.

이때 악플의 수위를 따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 수업은 자신이 쓴 악플이 본인에게 되돌아오는 플롯으로 짜여 있다. 안 좋은 말을 쓸수록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 또한 크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색

적인 비난이더라도 일단 거리낌 없이 써 보도록 하는 것. 다만, 악플 대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은 쓰지 말고, 같은 학급 친구를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한다.

악플 달기가 끝나면, 악플을 달고 난 다음에 든 감정에 대해 쓰고 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악플러 체험'은 이 다음 과정인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위한 활동의 성격이 강하지만, 악플러가 되어 본 느낌, 그 자체를 느껴보는 것에서도 의미가 있다. 실제로 학생들의 발표를 들어보면 '속 시원하다', '후련하다'와 같은 반응도 있지만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쁜 말을 써보니 내 기분이 좋지 않았다'와 같은 반응이 더 많은 편이다.

이처럼 악플러가 된 기분을 경험해봤다면, 마지막으로 자신이 쓴 악플의 대상이 되어 보는 과정이 남아있다. 교사는 사전에 손바닥 크기로 잘라둔 거울 시트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후 자신이 쓴 악플 옆에 이 거울 시트지를 붙이게 한다. 그리고 자신이 쓴 악플과 거울 시트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본인이 쓴 악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신에게 달린 악플이라고 생각하고 느낀 점을 써 보게 한다. 마찬가지로 각자 느낀 점을 발표해 학급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악플러 체험을 마무리한다.

[절정] '선플'이 가득 담긴 선플라워 채우기(약 40분)

악플러가 되어 봤으니 이제 서로 선플을 나눠볼 차례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큰 해바라기가 그려진 종이를 나눠주고, 테이프를 활용해 각자 등에 한 장씩 붙이도록 한다. 여러 개의 꽃잎으로 구성된 이 해바라기, 선플라워(Sunflower)는 학급 친구들의 '선플'을 담아낼 활동지다.

교사가 10~20분 정도 시간을 주면, 학생들은 자유롭게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친구의 등에 붙은 해바라기 그림의 꽃잎에 그 친구에게 남기고 싶은 선플을 남긴다. '예쁘다', '착하다'와 같은 형식적인 칭찬부터 그간 고마웠던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까지 내용은 자유롭게 적는다. 대신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그대로 살려 자신의 이름이나 정체는 밝히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선플 주고받기가 끝나면 각자 등에 붙은 활동지를 떼어 자신에게 남겨진 선플을 읽어보게 한다. 이후 악플 체험과 마찬가지로 선플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을 함께 공유한다.

시간이 남을 경우 각각의 꽃잎에 적힌 말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와 제일 가까운 색으로 해바라기를 색칠해 꾸며보는 '컬러 테라피' 활동으로 선플러 체험을 마무리한다.

평가는 이렇게 하세요

새로운 교과 지식을 학습하는 단원이라기보다 윤리적 당위성을 재확인하는 단원에 가깝기 때문에 별도의 성적 평가를 진행하진 않았다. 다만 학기말에 진행하는 포트폴리오 평가에 이 수업에서 작성한 활동지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과정 평가를 진행하였다. 물론 이외에 △소감 발표 참여도 △발표 내용의 충실성 △선플 활동 참여도 등을 태도 점수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교과서 개념 이해부터 시험 대비까지 완벽하게!

개념 잡고 성적 올리는 필수 개념서

국어 | 영어 | 수학 | 사회 | 역사 | 과학

Mirae 에듀

미래교실네트워크(www.futureclassnet.org)에서 더 다양한 거꾸로 교실을 만나 보세요.

때문이다.

수업 중 학생들에게 악플을 쓰도록 시키면서 원색적인 비난이나 욕설을 쓴다고 해도 따로 제재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수업의 플롯상 악플이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어떤 내용을 쓰든 그것이 실제의 악플과 유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Q. 이 수업을 위해 준비할 점은?

악플 체험 활동 도구로 거울 시트지가 필요하다. 이때 활동의 연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가급적 반사율이 좋은 시트지를 구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연출 효과에 욕심이 난다면 활동지를 반으로 접은 다음, 해당 부분을 펼쳤을 때 거울 시트지가 나타나게 하는 연출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선플 체험 활동 때 책받침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다. 활동지를 학생들의 등에 붙인 채로 진행하게 되는데, 글씨를 쓰는 과정에서 종이 가 찢어져 교복에 연필이나 펜 자국 등이 남을 수 있기 때문. 종이 밑에 책받침을 받쳐 쓰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Q. 이 수업을 지도하면서 유의할 점은?

학생들에게 악플을 쓰게 할 때 친구를 겨냥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무리 악플의 내용을 수업 중에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서로에 대한 악플을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학생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또한 선플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도해야 한다. 한 사람에게 한 명씩만 선플을 남길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써 주고, 받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선플 개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처받는 학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선플 개수를 두고 경쟁시키는 것과 같이 선플의 양에 의미를 부여하는 지도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Q. 다른 교과와 융합 요소는?

이 수업은 도덕 교과와 내용적으로 맞물리는 부분이 특히 많아서 아예 도덕 교과와 팀 티칭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이라 본다. 특히 수업 차시가 적은 기술·가정 교과는 수업 시간을 블록타임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도덕 교과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해당 수업 교과

시간을 빌려 블록타임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선플라워 활동지를 컬러링(색칠하기) 하는 과정은 미술 교과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고, 악플·선플 체험활동 후 소감문을 쓰는 과정이나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부분은 국어과와 연계해 진행할 수도 있다.

Q. 다른 교사들을 위한 제언

실제로 수업을 위한 고민을 하다 보면 잘 풀리지 않는 장벽에 부딪힐 때도 적지 않은데, 그럴 때는 동료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라고 말하고 싶다. 나 역시 정보통신 윤리를 다룬 이 단원의 수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번번이 수업화에 실패했다. 그러나 동료 교사들과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면서 좋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많이 얻었다. 꼭 교과융합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술·가정 교과목 내에서도 단순 실습과목을 넘어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교과목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시도하려는 교사들이 정말 많다. 그런 동료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수업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교사-학생이 함께하는 수업 혁신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수업 혁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늘어나면서 수업 혁신의 방식도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지요. 이 코너에서는 하브루타(chavruta), 비주얼 씩킹(Visual Thinking), 소프트웨어(software) 교육 등의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혁신해나가는 교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을 들어봅니다.

9월호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소프트웨어교육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소프트웨어교육은 '컴퓨터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을 말합니다. 컴퓨터적 사고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설계하고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논리적인 사고를 의미합니다.

올해로 SW교육 연구학교 운영 2년차를 맞은 경기 월곶중은 정보교과 수업, SW 동아리 외에도 다양한 교과와 SW교육을 접목한 '융합수업'으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월곶중에서 SW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화정 정보 교사는 이제 현 수학 교사, 이차니 과학 교사와 함께 '지구에서는 할 수 없었던 덩크슛, 다른 행성에서는 할 수 있을까?' 융합수업을 진행했다. 이 수업은 △'백호'의 고민 인식하기(과학, 2차시) △합수를 활용해 문제해결하기(수학, 1차시) △작 프로그램밍(정보, 2차시)으로 이뤄졌다.

일상 소재로 재밌게 배우는 수학·과학... 프로그래밍 토대가 되다

SW교육이라고 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코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SW교육은 일상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둔 교육. 이 교사는 학생들이 과학·수학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융합수업을 기획했다.

1~2차시는 가상인물 '백호'의 고민을 파악하는 시간. 교사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문제상황을 제시한다. 가령, "키가 작아(점프 높이가 낮아) 지구에서는 덩크슛을 할 수 없는 백호가 지구보다 중력이 작은 행성에 가면 덩크슛을 할 수 있다. 이 행성을 찾으려

면 어떤 핵심요소가 필요할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식. 학생들은 모둠별 토의를 통해 △농구공대의 높이 △각 행성의 중력가속도 △지구-타 행성에서의 점프높이를 구하는 공식 등의 요소가 필요함을 찾아낸다. 이후 점프 운동을 할 때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속력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며, 태양계 각 행성의 중력 크기에 따라 점프 높이가 달라짐을 이해한다.

3차시 수학시간에는 앞서 배운 중력가속도와 점프 높이의 관계를 함수식으로 표현해본다. 이는 향후 정보 수업에서 제작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작성하는데 활용된다. 학생들은 1차 함수 'y=ax' 그래프에서 y는 새로운 행성에서 뛰는 높이, a는 중력 값, x는 지구에서 뛰는 높이임을 이해하기 위한 모둠별 토의를 진행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평소 관심이 많은 농구라는 소재를 활용해 수학, 과학의 핵심 개념을 재밌게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필요한 핵심요소와 수행해야 할 작업을 순서대로 제시하며 컴퓨팅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직접 갈 수 없는 화성...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구현으로 창의력↑

4~5차시에 학생들은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스크래치'를 활용해 백호가 덩크슛을 할 수 있는 행성을 찾아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다.

이에 앞서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과정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은 △스프라이트의 등장 및 숨기기 △다른 행성에서 뛰 높이 계산하기 △덩크슛 동작 표현하기 △덩크슛 여부 판단하기 등 크게 4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인식했다. 여기서 '스프라이트'란 스크래치에서 움직이도록 설정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초기화면에 8개의 태양계 행성이 등장하고, 행성을 클릭하면 농구대와 사람 모형이 등

경기 월곶중 이화정 교사의 소프트웨어교육 수업

어느 행성으로 우주여행 가야 덩크슛 할 수 있을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 월곶중 학생들. 월곶중 제공

장한다. 즉, 행성과 농구대, 사람모형이 스프라이트가 되는 식.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정리한 후에는 스프라이트의 동작을 알고리즘 형태로 정리한다.

이 교사는 "프로그램 제작에 앞서 수행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정리하면 알고리즘을 구체화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게 데 효율적"이라며 "학생들은 실제 농구선수처럼 점프하는 동작을 프로그램으로 표현하려면 여러 장의 사진을 반복해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알고리즘의 '반복구조'를 이해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작성은 학생들의 실력 편차를 보완하기 위해 2인 1조로 진행한다. 두 명의 학생은 각각 네비게이터와 드라이버가 되는데, 한 학생이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작성방향을 안내하면, 나머지 학생이 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학생들은 짝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며 협업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이 교사는 활동 중간에 학생들이 역할을 바꾸도록 해 무임승차 문제도 방지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지구 외의 태양계 행성에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을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상상력을 기르고,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익힐 수 있었다"며 "또한 학교에서는 교과 지식을 본질적으로 배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수학·과학·정보 교과가 융합된 이번 수업을 통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분야의 지식을 응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교사의 수업지도 노하우

SW 융합수업의 효과 높이려면? "교과별 성취기준 고려해야"

Q. 수업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배경이 '우주'이다보니 태양계 행성을 다루는 것이 다소 어려웠다. 첫 화면에 8개의 행성이 등장하고, 한 행성을 클릭하면 나머지 행성들이 사라진 뒤 사람과 농구공대가 등장해야 했다. 즉, 처리해야 할 과정이 복잡했다. 따라서 모든 제작 과정을 학생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태양계 행성 그림과 배경은 교사가 제작해 배부하되, 스프라이트의 동작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는 등의 핵심 활동을 학생들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Q. 수업의 효과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농구'를 소재로 수업을 진행하니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았다. 단순한 수식 계산만으로도 백호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이를 시각화하니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성취감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 수업은 프로그래밍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각 교과의 핵심성취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것이 정보교과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과학·수학 교과에서는 무의미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수업은 과학의 '중력변화에 따른 물체의 운동', 수학의 '1차 함수' 등 각 교과의 핵심 개념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Q. 이 수업을 활용하려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정보, 과학, 수학 교사가 수업 전후에 빈번하게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과학, 수학 교사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프로그래밍으로 구현 가능한 것에 대한 한계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정보 교사가 프로그래밍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 학습활동이 과학, 수학 교과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각 교과의 성취기준을 고려한 SW융합수업의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화정 경기 월곶중 정보 교사



영상으로 배우는 영어

영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흥미도 잡고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지요. '재미'와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영어 수업. 영상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영어 수업에서 영상을 활용해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교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대구 매호중 김정은 교사의 영상 활용 영어수업

낮선 영국식 영어발음, 영화로 정복



영화 '어바웃 타임'을 시청한 후 활동지를 작성하는 학생들의 모습. 매호중 제공

대구 매호중의 한 수업시간. 학생들은 영화 'About Time(이하 어바웃 타임)'의 한 장면을 눈으로 즐기는 동시에 주인공의 대사와 나레이션에 귀를 기울인다. 김정은 대구 매호중 영어교사가 진행하는 영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

'어바웃 타임'은 영국에서 제작된 영화로 미국식 영어 발음에 익숙한 학생들이 영국식 영어 발음과 표현을 익히는데 제격이다. 학생들은 영화를 시청한 후 활동지의 빈칸을 채우고, 영화 속 한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친구들과 감상을 나누는 활동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영국식 영어 표현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배운 영어 문법 개념도 복습할 수 있었다.

김정은 영어 교사는 중2 영어 교과서 'What Do You Mean?' 단원 내용을 바탕으로 이 수업을 기획해 총 4차시에 걸쳐 진행했다. 김 교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지 묻고 들었다.

영국식 억양과 교과서 속 문법 '실제적'으로 익힌다

김 교사가 수많은 영화 가운데 '어바웃 타임'을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중2 1학기 영어 교과서 'What Do You Mean?' 단원에는 영어를 주언어로 사용하는 미국, 영국 등의 학생이 대화를 나

누는 본문이 등장한다. 가령 영국인 학생이 'Good Day(안녕하세요)'라고 아침 인사를 건네자, 미국인 학생이 'Day'의 영국식 억양 '다이'를 'Die(죽다)'로 알아듣고 화들짝 놀라는 식. 김 교사는 미국식 영어에 익숙한 학생들이 영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영어 억양과 표현을 이해하면 교과서 본문 내용을 좀 더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영국영화를 활용한 영어수업을 기획한 것.

해당 수업은 교과서 본문 학습을 모두 마친 후 4차시에 걸쳐 진행됐다. 1차시에 학생들은 주인공의 나레이션을 듣고 활동지의 빈칸을 채우며 영화 속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파악한 후 등장인물 관계도를 그리는 활동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낮설게 들리는 영어 억양을 활동지에 기재하며, "My mum was lovely but not like other mums(우리 어머니 사랑스러운 분이셨지만 보통의 엄마 같지는 않았다)"라는 대사 속 'not'이 미국에서는 '낮'에 가까운 발음으로 읽히지만, 영국에서는 '낫'과 유사하게 발음됨을 깨달았다.

김 교사는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는 다양한 표현을 배우기도 했다"며 "교과서에 등장하는 'Kind(친절한), Bad(나쁜)와 같은 상투적인 표현 대신 'Rectangular(직사각형의)'가 인물 성격묘사에 활용되면 '모난 듯한'이라는 의미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말했다.

2차시에는 주인공과 아버지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살펴보고 주인공 가족의 특별한 비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학생들은 영화 장면을 여러 번 반복 시청하며 활동지의 빈칸을 채우고, 해당 장면의 요지를 영어로 요약해보며 영화 내용을 이해했다.

김 교사는 "영화의 한 장면 학습을 마칠 때마다 수업시간에 배운 주요 문법 개념이 대화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간략히 짚어줬다"며 "학생들은 △Seem to 부정사 구문 △No matter what 구문 △감각 동사의 활용법 등이 일상 회화에 흔히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보고, 실제적인 표현을 통해 문법 개념을 복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비주얼 씹기'로 체화하는 영화의 교훈

'어바웃 타임'은 영국식 영어 학습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고찰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영화의 주인공은 과

거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로, 후회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면 시간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닫고 시간여행을 그만두게 된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이러한 영화의 내용을 깊이 공감하고, 영화의 교훈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할 수 있도록 3~4차시에 걸쳐 두 차례의 '비주얼 씹기' 활동을 수행하게 했다. 비주얼 씹기란 자신의 생각을 글과 그림 등으로 표현하며 생각을 체계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3차시에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여행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후 해당 장면을 선택한 이유를 모둠원에게 영어로 설명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영화 속 주인공의 심정을 헤아려봄으로써 영화의 내용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체화할 수 있었고, 모둠원과 생각을 공유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영화의 의미를 짚어볼 수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영어의 말하기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역량도 기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 4차시에는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사를 한 가지 선정해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보았다. 비주얼 씹기를 마친 후에는 모둠원에게 자신이 선정한 대사가 무엇이며, 해당 대사를 선정한 이유를 영어로 표현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교과의 핵심역량인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모두 기를 수 있었다.

김 교사는 "영어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도 한국어 자막을 틀어주니 영상 내용에 집중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은 영어 문법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깨닫고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낮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학생 눈높이에 맞춘 영상 선택과 수업 전 영상 점검은 필수"

Q. 수업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은?

영상을 선정할 때 학생들의 관심사를 고려해야 한다. 중학생들은 애니메이션을 어린 아이들이 보는 것이라며 다소 유치하게 생각한다. 이 경우 실제 배우들이 등장해 현실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실사 영화를 활용하는 것이 흥미유발에 도움이 된다.

다만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에 관람가를 확인하고, 교사가 반드시 영상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어바웃 타임'은 15세 관람가로, 중2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는 영화였다. 하지만 영상 중간 중간 다소 선정적인 장면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애니메이션과 달리 실사 영화의 경우 학생들이 시청하기에 다소 부적절한 장면들이 등장할 수 있으므로 교사가 사전에 영화 내용을 검수한 후 불필요한 부분을 편집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Q. 수업의 효과는?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학생들은 교과서 등을 중심으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영어는 반드시 공부로 깨우쳐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스토리 중심의 영화로 영어를 학습하니 영어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수업 시간에 '어바웃 타임'의 OST를 별도로 학습하지 않았음에도 한 학생은 스스로 영화의 OST를 찾아 들으며 영어 가사의 의미를 살펴보기도 했다. 또 다른 학생은 한글자막 없이 시청한 장면을 한글자막과 함께 감상하고 싶다며 스스로 유튜브 검색을 통해 영화를 찾아보기도 했다. 즉, 학생들은 영어를 즐기는 것으로 인식하며 영어 학습에 재미를 느끼게 된 것이다.

Q. 영어 수업에서 영상을 활용하려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바웃 타임'은 중2 학생들이 자막 없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우므로, 한글자막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학습지의 빈칸을 채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후속활동에도 흥미를 잃을 수 있다. 한글자막을 틀어 영화를 집중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의 빈칸을 채우는 과정에서 영어 대사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학습에 더욱 효과적이다.

또한 사전에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의 차이를 간략하게 안내해 학생들이 두 억양의 특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김정은 대구 매호중 영어교사



이달의 시사 논술

*이달의 시사 논술은 중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이달의 시사 이슈를 소개하고, 이슈에 관한 논술문제와 관련교과, 참고자료, 지도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동아일보 DB

‘국민연금’ 개편 두고 반대 여론 ↑, 해결책은?

난파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

우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3년 빠른 2057년경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연금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소득보장제도.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다.

우리나라에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도입 30년차를 맞은 국민연금은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어 가입자가 2200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의 ‘기금고갈론’이 확산되자 “지금껏 충실히 보험료를 납부해 왔는데,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것. 특히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수령 연령도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도 봇물을 이루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우리 사회가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기금 고갈 원인? 초저출산+초고령화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은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조 변화 때문.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반해,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즉 돈을 받는 사람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연금 재정 고갈 예상 시점이 당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진다는 것이다.

사실 국민연금 기금은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하에서 고갈이 불가피하다. 다만 고갈 시기가 언제인가가 문제. 정부는 5년마다 경제성

장을, 인구구조 등의 변화를 따져 고갈시기를 예측한 뒤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기금운용발전방안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내놓는데, 5년 전 재정추계 결과에선 기금 고갈시기가 2060년으로 예측됐지만 올해 재정추계 결과 기금 고갈시기는 2057년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인 것이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634조원인데, 이 기금이 2044년까지는 계속해서 늘어 2561조원을 기록하지만 이후 고령화 등으로 기금이 줄어들기만 해 2057년경에는 고갈된다는 것(국민연금공단 자료).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기금고갈시기를 늦추기 위해 현행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14%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마다 조금씩 줄여 40% 수준으로 만드는 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보험료를 내는 연령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2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출산율은 오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런 변화를 피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기금 부족해도 지급 보장되는데...” 국민 불신 ↑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고 보험료를 내는 연령도 상향조정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앞으로 몇 십년간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젊은 세대는 자신이 나중에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더욱 격하게 반발하는 상황.

일각에선 “현재 경제 전망도 어둡고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면 앞으로 고갈시기가 앞당겨질 것이 뻔하므로 국민연금을 대대적으로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을 현행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것. 독일, 스웨덴 등도 우리나라처럼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적립기금이 없어지자 자연스럽게 ‘부과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는 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을 경제활동인구가 낸 보험료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다만 부과방식은 경제활동인구에게

노인 부양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선 국민연금 기금이 부족하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못 박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쌓여 있는 돈이 나갈 돈보다 부족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관련법에 ‘적자보전조항’이 명시돼 국가지급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 국민연금 또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에는 세금을 퍼부으면서 국민 다수의 국민연금은 부담을 올리고, 적게 받도록 하려고 하느냐”는 불멘소리를 없앨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부담...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보건복지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국민연금은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등 변화에 따라 보험료 수입, 기금 운용 수익률, 노령연금 지급액 규모가 달라져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몇 년 뒤 또 다른 변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연관된 부분인 만큼 개편하려면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연금 보험료 9%는 일본 17.5%, 영국 21%, 미국 12.4% 등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 상승을 밀어붙이면 국민의 거센 반발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한 것. 특히 우리나라 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과 고용주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보험료가 올라가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져 경제도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전문가들은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저성장 등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에 안 좋은 요인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생각해볼 문제

1.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자.

2.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우리 사회가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눠 보자.

교과서 찾아보기

사회①-11-(2)단원. 생활영역에 따른 법의 분류
사회①-12-(3)단원. 현대 사회문제

참고자료

동아일보, 2018년 8월 13일자.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울머 0%대로 곤두박질

지도법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살아가게 될 현 중학생들에게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자신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이 사안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같은 다소 복잡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역할과 함께 국민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다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모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가 운영된다면, 어떠한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모둠별 토의·토론을 진행해봅시다. 이를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국민,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박원주 부산 개금여중 사회교사



교육현장의 '민주시민교육' 확산 위해 힘쓰는
염경미 경기 시곡중 교사

정치교육? 사회교과에서만 가능? “NO!”

염경미 교사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와 태도를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는 교육”이라면서 “수업은 물론 학교 문화 또한 민주적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초대석

교육계 주요 인사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교육 철학을
들어보며 앞으로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교육계가 뜨겁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근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독립 교과목 개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민주시민교육’은 대체 무엇이기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 해당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사람’을 ‘민주시민’이라 일컫는다. 민주시민교육은 결국 이런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을 말하는 것. 최근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 △성폭력 △갈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움직여야 하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교사들에게 아직은 생소하다는 데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엇을 주제로, 또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 오랜 시간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해 힘써온 염경미 경기 시곡중 사회교사로부터 민주시민교육 노하우를 묻고 들었다. 염경미 교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간한 중학교 교과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집필팀장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며 얻은 노하우를 집대성한 ‘선생님, 민주시민교육이 뭐예요?’를 출간했다.

평등·존중의 가치 지향하는 것부터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태도와 가치를 배우도록 하고 이를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태도와 가치’라고 하면 일단 ‘정치 참여’부터 떠올리기 쉽다. 투표, 집회, 결사 등 정치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만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다. 하지만 염 교사는 “평등·존중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 덕목”이라면서 “먼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함을 일깨워주는 ‘보편적 인권 교육’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일까.

민주주의 사회란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서로 대등하게 의견을 나누며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 이처럼 모든 시민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모두가 평등하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사회의 성립 자체가 가능한 것. 정치 참여는 그 다음이다. 염 교사가 학기 초에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한 수업부터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인권을 다루는 수업에선 △국민 주권 △다문화사회와 세계화 △탈북자 인권 등의 주제를 비롯해 청소년 선거권, 학생의 인권과 학교 민주주의 등 학생 자신의 삶과 직결돼 스스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도 다채롭게 다룰 수 있다. 특히 학생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들의 수업 효과는 매우 크다는 것이 염 교사의 주장. 예를 들어보자. 학생들은 학교의 두발 규제처럼 자신의 인권이 침해받는 사례를 찾아보며 인권 침해가 왜 심각한지를 뼈저리게 깨닫는다. 나아가 ‘두발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등 스스로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해결책을 직접 마련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나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 이뿐만이 아니다. 인권침해의 부당함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본 학생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다른 사회적 약자의 입장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다.

“나의 인권이 침해당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 학생들은 여러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나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경험을 가진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염 교사)

“우리 사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보편적 인권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덕목을 쌓았다면,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앞서 정의한 것처럼 민주시민은 우리 주변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그런데 정작 학교에서 사회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방법을 몰라 사회문제에 무관심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사회에 만연한 문제들도 결코 해결될 수 없을 터. 이에 염 교사는 최저임금, 청년

실업, 미투 운동 등 굵직한 사회적 쟁점들을 수업 주제로 끌어들이며 학생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토론하도록 유도했다.

그런데 이는 염 교사가 담당하는 교과가 ‘사회’라서 가능한 것은 아닐까? 국어·수학·과학 등의 교과라면 사회적 이슈를 수업의 소재로 삼기가 어렵지 않을까? 염 교사는 “그래서 해당 교과와 사회적 이슈의 연결지점을 찾으려는 교사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이슈가 터져 나올 때 어떤 단원을 배우고 있을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적 쟁점은 반드시 이 단원에서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경형화된 방식이 있을 수 없다. 이는 사회 교과에서도 마찬가지.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수업의 방향이 열려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예를 들어 미투 운동이라는 이슈를 수업 소재로 삼으려 하는데 현재 ‘법’을 배우고 있다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활동을 해볼 수 있다. 반면 ‘대중매체’ 단원을 배우고 있다면? 미디어에서 여성을 어떻게 다뤘는지 조사해볼 수도 있다.

다른 교과 역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국어 교과에 ‘쓰기’ 단원과 연결지어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비혼 여성을 가상 인물로 묘사한 글을 써보거나, 수학 교과에 ‘통계’ 단원과 관련하여 대기업 고위 인사의 남녀 비율을 산출해보는 식. 염 교사는 “이런 수업을 진행하려면 교사들이 평소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인문학을 공부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실 ‘밖’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이 교육현장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려면 교원들의 노력이 필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교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다는, 또 모든 교사가 민주시민교육의 담당자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이 오로지 사회교과만의 책임이라고 여기는 현실 속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광범위하게 뿌리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노력은 ‘수업 밖’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학교 교육은 수업이 진행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담임교사가 학급을 운영할 때, 또 교사들이 학생들과 사적으로 대화할 때와 같은 순간에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수업에서는 평등과 존중을 강조하면서, 막상 쉬는 시간에는 학생들을 위계적으로 대한다면 학생들은 교사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염 교사는 “언제나 학생을 존중하고, 또 선배교사로서 후배교사를 배려하는 등 학교 분위기를 민주적으로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천!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학자와 만나요'

채집도, 표본 제작도 척척! 생물학자 낯설지 않아요



곤충의 표본을 제작하고 있는 학생들.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집·표본 제작 등의 활동도 직접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특히 파리·갯지렁이·종자 박사 등 다른 곳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물 및 생물학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더욱이 회마다 매번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나서 프로그램에 다채로움을 더하고 있다고.

이 프로그램은 강연형과 체험형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학생들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먼저 강연형 프로그램에서는 생물학자가 직접 △생물학자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 △자신이 전공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 △현재 수행하는 업무 등을 낱알이 설명한다. 학생들은 궁금한 점을 직접 묻기도 하며 생물학자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체험형 프로그램에서는 생물을 채집하고, 종에 맞게 분류한 뒤, 표본을 제작하는 활동을 해본다. 생물학자의 체계적인 연구과정을 몸소 경험해봄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생물학자와 만나요'는 인천에 위치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진행된다. 올해 하반기(9~12월)에 운영이 예정돼 있으며, 회당 24명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체험시간은 2시간 내외이고 비용은 무료다. 참가를 원할 경우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32-590-7258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체험활동 연관 직업

생물학자: 생물학자란 생물의 구조, 발달, 특성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물학자가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의학이나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인류의 삶에 큰 도움을 준다. 생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생물학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춰야 하며, 장시간의 실험을 견딜 수 있는 인내심과 꼼꼼함 또한 겸비해야 한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다양한 생물 종의 보존이 위협받고 있다. 멸종되는 생물이 늘어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는 인류의 삶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생물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 힘쓰는 전문가가 절실한 상황.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학자에 대해 소개하는 '생물학자와 만나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물학자와 만나요'는 생물학자에게 직업과 관련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생물 채

● 동명대학교의 '해양로봇아카데미'

“미래의 주인공 로봇, 어디까지 아니?”



동명대 해양로봇교육기술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수상로봇.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 로봇을 직접 조종해볼 수 있다. 동명대 해양로봇교육기술연구소 제공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하고 있다. 때로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처리하며 인류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미래 유망 직업으로 '로봇전문가'가 자주 거론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

부산에 위치한 동명대학교 해양로봇교육기술연구소는 로봇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로봇의 특성을 이해하고 직접 로봇 조종까지 해볼 수 있는 '해양로봇아카데미'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바다가 있는 부산의 특

성을 살려 '해양로봇'에 국한된 활동을 하는 것이 특징. 해양로봇은 수중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로봇을 말한다.

'해양로봇아카데미'는 이론, 실습, 경연 융합형태로 진행된다. 먼저 이론수업에서는 해양로봇과 일반로봇의 작동원리를 배우고, 두 로봇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알아본다. 실습시간에는 해양로봇의 한 종류인 '수상로봇'과 '수중로봇'을 직접 작동시켜본다. 마지막 경연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 학생들은 수상로봇이 장애물을 피해 목적지로 나아가면서 동시에 물 위에 떠있는 탁구공을 구조하여 가장 빨리 결승선으로 들어오도록 조종해야 한다. 이때 탁구공 구조를 인명 구조 상황으로 설정하는데, 학생들은 이를 통해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의 심각성도 깨닫는다. 진로 체험의 또 다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셈.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이라는 로봇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자질도 갖추게 된다. '해양로봇아카데미'는 동명대학교 해양로봇관에서 진행된다. 올해 말까지 총 10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며, 회당 30명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고 체험시간은 3시간이다. 참가를 원할 경우 동명대 측과 유선 협의 후 꿈길 홈페이지(ggoomgi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51-629-1565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체험활동 연관 직업

로봇전문가: 로봇전문가는 로봇을 연구·개발하고 로봇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개발한 로봇은 △산업 △의료 △해저탐사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돼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한다. 기계공학·전기공학·메카트로닉스공학·센서공학·소프트웨어공학 등 다양한 공학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새로운 현상에 대한 호기심, 창의성, 문제 해결력도 지녀야 한다.

함께 성장하는 스승 제자

'함께 성장하는 스승♥제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이 사례는 김영옥 경기 봉일천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게임하고, 소풍가고... 신나는 Wee클래스도 있다!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봉일천중은 상담교실인 'Wee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일천중 Wee클래스(이하 위클래스)는 학생들이 상담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교생에게 상담의 중요성을 알리는 '상담체험주간'을 운영하기도 하고, 상담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소풍을 가는 '사제동행 프로젝트'도 추진했지요.

그림 그리고 게임하며 신나게! 자연스럽게!

많은 학생들은 위클래스를 '찾아가기 어려운 곳'으로 여깁니다. 누구나 편하게 놀러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말해줘도 막상 고민이 생겼을 때 위클래스를 찾는 학생은 드물지요. 아마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과의 거리부터 좁혀려고 노력했습니다. 신나고 재밌는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위클래스 방문을 유도하는 상담체험주간 운영이 대표적입니다. 상담체험주간에 운영된 프로그램 중 특히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동그라미 모양의 종이에 다양한 표정을 그려보는 '내 마음을 다다다'입니다. 슬픔·짜증 등 부정적인 표정을 그린 경우에는 힘들었던 이유도 함께 써서 친구들과 공유했지요.



게임은 우리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교사에게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지요. 그래서 교사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초성으로 보여주고 그 감정에 대해 설명하면, 학생들이 어떤 감정인지 알아 맞히는 '감정단어 초성게임'도 함께 했습니다. 'o.o'를 보여주고 '이유 없이 힘든 마음'이라고 설명하면 학생들은 '우울'이라는 정답을 말하는 식이지요.

아직 어린 학생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그 감정을 더 즐길 수도, 또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림을 그리고 게임도 하면서 미처 몰랐던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깔깔 웃으며 그림을 그리고, 신나는 게임을 한 학생들은 좀 더 편안하게 위클래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위클래스에 방문하지 않았던 학생이 찾아와 진솔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지요.

교사가 준 사랑, 언젠가 더 큰 사랑으로 자라나리

사랑은 둘 이상의 사람이 나누는 감정의 교류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런 긍정적인 감정의 교류를 경험해보지 못한 채 자랍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사랑받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따뜻한 감정의 교류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사제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유입니다. 주말을 이용해 △남산타워 △한옥마을 △전쟁기념관 등으로 함께 소풍을 떠나는 것이지요. 학생들은 선생님·친구들과 맛있는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며 '사랑'을 배워갔습니다. 어떤 학생은 "나중에 상담교사가 되어 더 큰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요"라고 말하더군요. 저 역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학교 연구모임·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전남 목포덕인중 교사동아리 '비전드림'

교사의 사랑이 학생의 꿈 피워낸다



학생들의 진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회의 중인 '비전드림' 교사들. 목포덕인중 제공

전남 목포에 있는 목포덕인중에는 교사 동아리 '비전드림'이 있다. 비전드림은 꿈이 없는 학생들이 꿈을 찾고, 그 꿈에 대해 더욱 명확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비전드림을 이끄는 김정훈 목포덕인중 진로 교사에게 동아리 활동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해 들었다.

너희들 모두가 특별하단다

비전드림의 제1목표는 성적만으로 평가받아 자신감을 잃어가는 학생들이 저마다의 강점을 발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꿈을 찾을 수 있게 돕는 것. 이를 위해 비전드림은 교내 진로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최고의 달인에 도전하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의 협력이 빛을 발했다. 먼저 교사들은 △역사 △방송 △음악 등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의 진로 동아리를 개설하여 지도교사가 됐고, 입부한 학생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을 아낌없이 나눠줬다. 음악 동아리를 예로 들면 악기 연주법을 가르쳐주거나, 학교폭력 예방교육 캠페인 송을 함께 만드는 식. 학생들은 교사와 함께 갖고 닦은 장기를 지역사회에서 열린 공연에 참가해 뽐냈고, 관련 대회에 참가해 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꿈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변화 이끌려면? 교사의 관심과 사랑이 중요

비전드림 소속교사들은 학생들의 학교 '밖' 삶에도 관심을 가졌다.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면 교사의 전폭적인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다. 비전드림이 교우관계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학교 밖에서 따로 만나고,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는 '소나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병행한 것도 이 때문.

소속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문제집을 풀고, 낚시, 축구 등 학생들이 평소 원했던 활동을 하며 친밀한 사제관계를 형성했다. '소나기'처럼 내리는 교사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보다 행복해졌다. 이는 학생들의 자신감 향상으로, 그리고 꿈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는 자세로 연결됐다고.

김 교사는 "학생이 교사를 신뢰할수록 교육적 효과도 극대화되기 때문에 함께 실시하는 진로교육의 효과 역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동아리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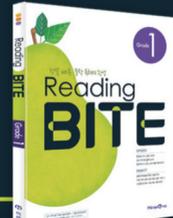


핵심 문법만 콕!
쉽게 이해하는
영어 문법 필독서
PREP-Grade 1,2,3-SUM(총 5권)

중학교 영어 문법과 독해

BITE

한 번에 잡자!



꾸어 읽으면서
직독직해하는
영어 독해 기본서
PREP-Grade 1,2,3-SUM(총 5권)

Mirae **N** 에듀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자유학기제'에 자랑하고,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편집팀 이메일(edudonga@donga.com)로 연락처와 사연을 보내 주시면 담당기자가 전화를 드립니다.



중학교 영어 문법과 독해

B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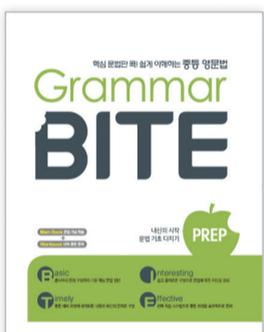
한 번에 잡자!

Grammar B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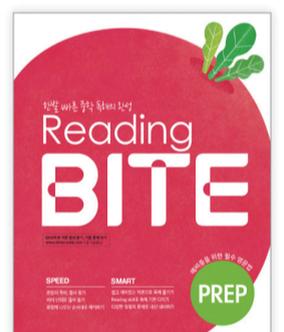
Reading BITE

내신 및 서술형 완벽 대비
한발 앞선 수능 절대평가까지 대비

끊어 읽는 직독직해로
중학 독해부터 수능 독해까지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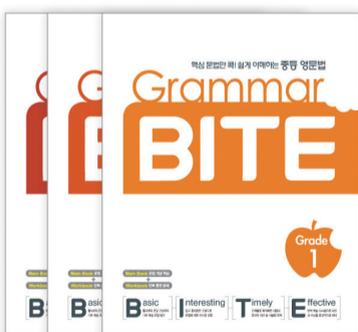


예비중을 위한
개념부터 내신 대비까지
중등 영문법 기초 다지기



예비중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읽을거리로
중등 영어 독해 기초 다지기

PR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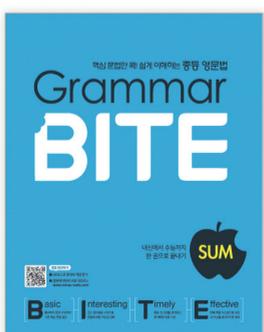


내신대비,
서술형에서 수능까지
중등 영문법 완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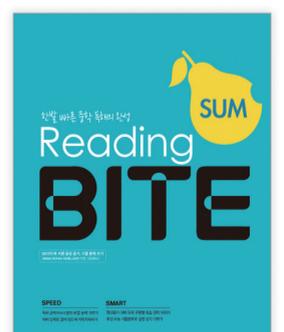


끊어 읽고
직독직해하며
유형 중심 중등 영어
독해 완성하기

Grade
1, 2, 3



예비고를 위한
내신에서 수능까지
영문법 한 권으로 끝내기



예비고를 위한
유형별 학습전략으로
한발 빨리 수능 독해 준비하기

SUM